

### 이종찬 광복회장 독립운동단체 주최 광복절 기념사

# “피로 쓴 역사, 험로 못 덮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뉴라이트' 논란으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두 개로 나뉘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 등 56개 독립운동단체연합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자체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기념식이 따로 열린 것은 1965년 광복회가 창설된 이래 최초다.

이날 독립운동단체연합의 별도 광복절 기념식에는 광복회원 등 450여 명이 자리했다. 당초 350명을 초대했으나 정치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오면서 주최 측 추산 450여명으로 늘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태극기를 손에 들고, 일부는 개량 한복을 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윤희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도 기념식을 지켜봤다.

앞서 광복회는 "경축식 불참 이유가 훼손 될 것을 우려해 정당·정치권 인사는 초청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현장 참석을 막지는 않았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광복회 주최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 판쳐 역사적 퇴행 · 훼손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긴 역사 속에서 역사는 권력의 편 아냐”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며 “독립운동가 후손이 모여 독립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광복회는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분열의 시작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광복의 의미를 기리는 진정한 통합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피로 쓴 역사를 험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는 없다”며 “망령처럼 살아가는 친일사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건국절을 들먹이는 이들이 보수를 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마디만 더 하겠다. 제가 내년엔 90살로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역사를 봐 왔다. 긴 역사 속에서 역사는 권력의 편이 아닌 정의의 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 기념사 이후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의 축사와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의 '1948년 건국절은 식민지배 합법화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축사 중간 '윤석열 탄핵' '대한독립 만세' 등을 외치며 환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정부 공식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부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뉴스시스

### “광복절에 기모노·기미가요? 있을 수 없는 일”

## KBS 오페라 ‘나비부인’ 편성 빈축

태극기 그래픽 거꾸로 사용도 도마 위... 시청자 비판 이어져

KBS, 입장문 통해 “시청자분들께 우려·실망 끼친 점에 사과”

공영방송 KBS가 광복절에 오페라 ‘나비부인’ 공연 실황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빈축을 샀다. 해당 오페라는 일본이 배경으로 기모노를 입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건 물론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기미가요도 삽입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KBS는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KBS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공연 예술 녹화 중계 프로그램인 KBS 중계석 프로그램과 관련 시청자분들께 우려와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KBS는 KBS ITV가 이날 오전 0시부터 KBS 중계석을 통해 오페라 ‘나비부인’ 공연 실황을 방송한 것과 관련 당초 6월29일 공연이 녹화됐고, 지난날 말에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올림픽 중계로 뒤로 밀리면서 광복절 새벽에 방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BS는 “바뀐 일정을 고려해 방송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시의성은 적절한지 정확히 확인, 검토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로 뜻깊은 광복절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16일 0시 방송 예정인 ‘나비부인 2부’는 다른 공연 방송으로 대체한다.

이탈리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가 작곡한 이 오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 나가사키가 배경이다. 게이 사 초초가 일본에 주둔한 미국 해군 장교 핀커튼을 만나 비극적인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다.

등장인물들이 기모노를 입고 나오고 특히 초초가 핀커튼과 일본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에선 군국주의 상징 중 하나인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 선율도 삽입됐다.

KBS는 광복절인 이날 여러 논란을



KBS 중계석 이 방송한 오페라 '나비부인' 중. (사진=KBS 캡처)

자초했다. 이날 오전 방송된 '930 뉴스'의 기상캐스터 출연 코너에서 배경 화면의 일부에 태극기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우가 반전돼 시청자들의 지적과 항의가 잇따랐다.

KBS는 또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인물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장면에 맞추기 위해 제작자가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태극기 그림을 반전시킨 결과였다”면서 사과했다.

KBS 시청자 청원게시판 등엔 “광복절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에 어떻게 맞추기 위해 제작자가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태극기 그림을 반전시킨 결과였다”면서 사과했다.

KBS 시청자 청원게시판 등엔 “광복절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에 어떻게 맞추기 위해 제작자가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태극기 그림을 반전시킨 결과였다”면서 사과했다.

KBS 시청자 청원게시판 등엔 “광복절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에 어떻게 맞추기 위해 제작자가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태극기 그림을 반전시킨 결과였다”면서 사과했다.

KBS는 광복절인 이날 여러 논란을

### 전주시의회, 전주 국공립

#### 어린이집연합회와 현안 논의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지난 14일 전주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문필래)와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 조리 종사원의 채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문필래 전주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전주시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으나 아직도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발전적 운영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에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시의회에서도 어린이와 교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태극기를 흔들며'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광복회 주최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 영호남 시도지사, 가업상속공제 확대안 환영

지방소멸 대응·지역 균형발전 위한 기업유치 새 발판 마련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기회 발전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경남도지사)을 비롯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8명은 14일 지역경제발전 강화 및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환영문 “을 발표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난 7월 8일 개최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공동 협력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정부가 같은 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신속히 반영한 데 대해 환영문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하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회 발전 특구에 창업

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해주는 공제 한도도 없애진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확대와 공제 금액 확대는 모든 지방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지역 일자리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견기업들의 지방 이전 및 투자 활성화를 저출생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방 인구 소멸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이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및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안을 적극 환영하며, 법안이 통과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럽프스킨

#### ASF 도내 유입 차단 총력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경기 안성에서 럽프스킨이 발생하고, 경북 영천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축산농가에 알람톡과 SNS 등을 활용해 발생 상황과 방역 수칙을 신속하게 전파했으며, 지난 13일 방역 대책회의를 열어 관계 기관별 방역 조치를 점검하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럼프스킨은 침피리와 모기 등 흡혈 곤충을 통해 전파되며, 고열과 피부에 혹이 생기는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고열과 구토, 피부 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10일 이내에 100%의 폐사율을 보이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올해 경북 영덕에서 첫 발생 이후 총 7건이 보고되었으며, 그중 5건이 경북에서 발생했다. 다행히도 전북 지역에서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다. /이만호 기자

##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관리 체계화

민주 한병도 의원,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은 지난 14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및 대부, 양여 등 특례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시에는 행정안

전부 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방만한 공유재산 운영을 방지했다.

이울러,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 특례 운영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특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소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공공 복리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별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통해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



### 남원시의회, 역대 의장 초청 간담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지난 14일, 의정실에서 역대 의장 8명을 초청하여 제9대 후반기 남원시의회 원 구성과 의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역대 의장들은 새롭게 시작한 제9대 후반기 남원시의회 의장단을 향해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지속되는 이상기온과 폭염으로 인해 지역민들과 지역 농산업을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힘들 때일수록 시민에게 힘을 주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영태 의장은 “선배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따뜻한 지지를 통해 지금껏 우리 의회가 역할을 이어오면서 지방자치의 의의가 있다”라며, “선배님들의 고견을 세우고 온고지신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 완주·전주 통합 관련 반대 여론 전달

유희태 완주군수, 우등기 지방시대위원장 만나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난 14일 우등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완주·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 의회, 시민단체 등 지역 내 높은 반대 여론을 전달했다.

유 군수는 “지역의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으로 관내 주민 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주민투표 없이 통합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요청했다.

이어 “완주군은 행정통합 보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전주, 익산, 김제)와 기능적·경제적 상생사업 협력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춰 완주군민의 자존감 고양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 승격을 추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특히 “일부 찬성단체에 의한 주민 서명 통합건의는 군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에 이뤄진 것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등기 위원장은 “완주 군민에 의한 통합건의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돼 절차를 추진 중이지만, 완주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